

보문소 *that*을 취하는 동사에 관한 연구

최규정

(전북과학대학)

Choi, Kyu-jung. 2004. A Study on the Verbs Which Take a *That*-clause or *Zero-that* Clause as their Complemen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4), 229-250. In English there are various kinds of transitive verbs which take *that*-clause or *zero-that* clause as their complement. This paper deals especially what makes the verbs choose the complementizer *that* or *zero-that* in their complement. The basic conception of this paper is that "I think he is dead" and "I think that he is dead" are formed by paratactically putting together two independent sentences: "I think : he is dead" and "I think that: he is dead". So the *that*-less complement is not formed by omitting the complementizer *tha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lements that have influences on the verbs choosing *that*-clause or *zero-that* clause as their complement and to make accurate use of the complementizer *that*.

주제어(Key Words): *that*-clause, *zero-that* clause, performativeness

1. 서론

영어에는 보문으로 *that*절과 *zero-that*절을 취하는 동사들이 많다. 이 절을 전통문법에서는 흔히 명사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절이라고 부른다. 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이 목적어절이 동사와 이어질 때, *that*에 의하여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that*이 없이 이어진 경우가 있다. 이 때 사용된 *that*을 전통문법에서는 접속사라고 하고 *that*이 없이 이어진 경우 *that*이 생략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절에 한하여 *that*이 있는 절과 *that*이 없는 절은 생략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별개의 문장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that*의 유무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여 이 문제의 보문소 *that*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130여 개의 해당 동사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보문 앞에 that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밝히고, 동사의 보문에 that이 있고 없이는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지 밝힌다. 먼저 동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상의 특성을 토대로 보문에 that의 유무와의 관련을 찾고, 이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내용절(content-clause)은 that의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구조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동사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순서로 본 논문을 전개한다.

이 that에 관한 명칭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법에서 사용하는 명칭보다는 최근의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종속절을 내포(embedding)하고 있는 주절을 ‘모문(matrix sentence)’라고 칭하고, 주절에 내포된(embedded) 절 즉 종속절로서 목적어절 역할을 하는 내포문(embedded sentence)을 ‘보문(complement)’이라고 한다. 또한 보문을 이끄는 ‘that’을 ‘보문소(complementizer)’¹⁾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본론

2.1 보문소 that의 분화

Jespersen(1909-49, §2.3₁)에 의하면 보문소 that은 한정사(determiner) that과 마찬가지로 원래 접속사가 아닌 지시대명사 that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 지시대명사는 발음과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화되어 결국 동사와 보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범주인 접속사로 변화하였다. 또한 ‘that이 있는 절과 that이 없는 절’의 차이를 규명하면서 that의 분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a. I think he is dead.
b. I think that he is dead.

그에 의하면 문장 (1a)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고 말하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설명이라고 한다. (1a)와 (1b)는 원래 독립된 별개의 두 문장이 병렬로 연결된 표현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I

1) Rosenbaum이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1967)에서 사용한 용어

think'와 'he is dead'가 연결되었고, 후자는 'I think that'과 'he is dead'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후자의 'that'은 원래 지시대명사였는데 (1b)의 두 문장이 병치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 지시대명사 *that*은 강세가 약화되는 발음변화를 겪었다. 즉 지시대명사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모음 발음은 [æ]였으나 후에 분화하는 과정에서 [a]로 약화되었다. 그 결과 발음이 약화된 *that*은 뒤에 이어지는 절에 포함된 느낌이 들게 되었고, 결국 뒤의 절을 유도하는 어휘로 취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현재에는 본래 지니고 있었던 지시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고, 통사적 기능도 달라져서 접속사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로 취급받게 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특히 통사론에서는 자주 사용한 용어인 보문소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2.2 That 보문과 Zero-that 보문

오늘날 흔히 (1b)에서 보문소 *that*이 생략되어 (1a)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에는 문장성분으로서의 *that*절을 보문로 취하는 동사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동사의 보문을 유도하는 보문소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Michael Swan(2002)도 이 보문소 *that*의 유무를 '생략'으로 간주하고 있다.²⁾

We can often leave out the conjunction *that*, especially in an informal style. In indirect speech *that* can be left out informally after many common reporting verbs.

James said (that) he was feeling better.

I thought (that) you were in Ireland.

The waiter suggested (that) we should go home.

(Swan, 2002, Practical English §560, pp. 588)

2) 그러나 접속사 *that*은 informal style에서는 생략이 가능하고, 어떤 일부의 동사들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That cannot be dropped after a certain verbs(e.g. reply, telegraph, shout).....

- (i) James replied that he was feeling better
- (ii) *James replied he was feeling better.
- (iii) She shouted that she was busy.
- (iv) *She shouted she was busy.

또한 몇 개의 사전을 참고해 보면,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대하여 해당 동사와 관련하여 역시 ‘생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The conjunction *THAT* is sometimes omitted, often after verbs of thinking, saying, believing, etc. This omission almost always occurs when the dependent clause begins with a personal pronoun or a proper name and is most frequent in informal speech and writing.³⁾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1992)

In ordinary speech *THAT* can often be left out before a noun clause, especially after common verbs of saying or thinking.⁴⁾ It is not usually left out in formal English or after more formal verbs of saying: She stated that the report was incomplete.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1992)

(1)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의 *that*은 종종 생략된다. 특히 *think*, *believe*, *know*, *wish*, *suppose* 따위의 뒤에서는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learn*, *state*, *suggest* 따위의 뒤에서는 *that*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보통.

(2) 목적절을 이끄는 *that*은 종종 생략되지만, 동일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절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에는 그 *that*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보통: He says (that) he cannot come to see me today, but that he can come tomorrow. (Obunsha’s Comprehensive English-Japanese Dictionary, 2000, pp. 2124 번역)

이처럼 대부분의 문헌에는 *that*에 유무에 대하여 ‘생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문소 *that*의 있고 없음은 ‘생략’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별개의 문장으로 보자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입장이다. 즉 동사의 자체가 가지는 특성, 보문의 정보전달의 정도, 문의 구조의 영향 등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that*의 유무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3) She said (that) they would come in separate cars.

4) She said (that) it wasn’t time. / I think (that) it’s fine. / He told me (that) he agreed. / I knew (that) he had arrived.

2.3 동사의 수행성

먼저 동사가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hat* 절과 zero-*that*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130여 개의 동사를 조사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문에 사용되는 *that*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이 동사들의 수행성(performativeness)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동사들의 수행성의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여 보문으로 *that* 절과 zero-*that*절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기로 한다.

제1부류는 수행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로 동사가 가지는 정보의 전달력이 가장 약한 경우이다.

- (2) a. I hope () you'll come and see us when you're in London.
 b. *I hope that you'll come and see us when you're in London.

(2a.b)에서 보듯이 *hope*는 *that*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것보다 *that*이 없는 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모문 I hope가 보문에 덧붙여 있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 내용전달의 중요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hope*류의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fancy, know, mind, presume, understand 등

다음에는 제2부류로서 제1부류보다는 수행성이 약간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은 대체적으로 *that*의 유무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동사들이다. 보문으로 *that*이 있는 절을 사용하면 격식을 차린 문장유형이 되고 *that*이 없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문장으로 여겨지는 동사들이다.

- (3) a. He admits that he did it himself.
 b. He admits () he did it himself.

위의 (3a)와 (3b)는 모두 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처럼 *that*의 유무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admit*와 같은 유형의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ccept, assume, discover, fear, figure, foresee, hear, imagine, promise, reply, see, wonder 등.

그러나 제1부류와 제2부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들도 있다.

- (4) a. I think () she's wrong, don't you?
- b. The police think () the bomb was planted by terrorists.
- c. The police think that the bomb was planted by terrorists.
- (5) a. I suspected () you may be right.
- b. We suspected () he was the murderer even before we were told.
- c. We suspected that he was the murderer even before we were told.

(4a)는 보문소 that이 없는 경우가 옳다. 주절에 해당하는 모문 I think가 정보의 전달력이 거의 없고 전달내용의 비중이 보문에 있기 때문에 tag question에 don't you?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여기서 think는 수행성이 매우 약하여 that이 사용되지 않는다. (4b.c)는 (5b.c)처럼 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5a)는 성격이 좀 다르다. (5a)는 구어체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에 흔히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5b.c)는 특히 '좋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약간의 수해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동사처럼 보문 내용의 영향을 받아 수행성이 매우 약한 경우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격식(formality)에 따라 that의 유무가 결정되는 동사들은 say, suppose, believe, expect, find, guarantee, guess, gather(추측하다) 등이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believe는 그 수행성의 정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

- (6) a. I believe () he is honest.
- b. I believe that he is honest.
- c. She has, I believe, no children.
- d. Columbus believed that the earth is round.

(6a)처럼 동사 believe는 일반적으로 zero-that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격식을 차린 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6b)처럼 that절을 취할 수 있다. 또한 (6c)처럼 I believe가 정보의 전달력을 거의 잃고 삽입이나 심지어 외치(extraposed)되기도 한다. 그러나 (6c)에서는 보문소 that

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행성이 대단히 높은 예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elieve*는 담화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사에 포함된다. 동사 *find*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령 *The jury found that the man was innocent.*와 같이 법률에서 ‘판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행동’의 의미가 강조되어 수행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that*을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음에는 제3의 부류로서 수행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동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류의 동사들은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1997)에는 보문소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에는 대부분 보문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동사 자체가 가지는 수행성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동사들에 포함시켰다. 이 동사들은 사전에 따라 *that*이 생략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보는 동사들 즉 보문소 *that*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 (7) a. The newspapers alleges (that) the medicine is perfectly safe.
 b. They claim (that) they have discovered a cure for the disease, but this has not yet been proved.

위의 (7)의 *allege*나 *claim*과 같은 동사는 *that*이 없는 보문을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개 *that*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zero-that*절을 보문으로 취할 경우 상당히 *informal*한 문장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that*절을 보문으로 취한 예문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ssure, confess, convince, decide, declare, dream, estimate, explain, forget, hint, imply, indicate, inform, insinuate, insist, learn, maintain, mean, mention, notice, object, observe, own, perceive, persuade, pray, prove, realize, recognize, recollect, remember, sense, state, stipulate, submit, suggest, surmise, swear, testify, wager, warn 등

그러나 이 부류에 해당되면서 동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가 넓어서 보문 내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사들도 있다.

- (8) a. He asks (that) he may be allowed to go.
 b. He asked that they (should) be allowed to leave.
- (9) a. I can't help feeling (that) you haven't been completely honest
 with me.
 b. I feel that some disaster is impending.

위의 예문 (8a.b)와 (9a.b)에서 보듯이 ask나 feel은 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강하다. 현재 한국에서 출판되는 영한사전은 거의 that절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위의 feel를 예로 설명하면 원래 수행성이 강한 동사였다. (손으로)만지다, (만져서 ...라고 느끼다)에서 그 의미가 '①(마음으로)느끼다, 생각하다 ②(물건이)...한 느낌이 들다'로 확대되어 심지어 '생각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어 결국 think와 같이 that없는 보문을 취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find는 본래 수행성이 있는 동사이므로 대부분 that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이처럼 수행성이 다소 강하더라도 보문의 성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 (10) a. Mind you don't drop it!
 b. I'll wager he's had enough of foreign travel, after that!

(10a.b)에서와 같이, mind나 wager는 수행성이 다소 강한 동사로 간주되지만 감탄문이 보문으로 오는 경우는 that없는 절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정보의 전달력이 보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문의 의미 전달력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4부류로서 동사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수행성이 대단히 강하여 반드시 보문소 that을 취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다.

- (11) a. He acknowledge that he was wrong.
 b. ?/* He acknowledge () he was wrong.
 c. She affirmed that she was telling the truth.

d. ?/* She affirmed she was telling the truth.

위의 (11)예문에서 보듯이 *acknowledge*와 *affirm*은 수행성이 매우 강하여 *that*절을 취하지 않으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동사는 상당히 많이 있다.

advise, allow, announce, answer, appreciate, ascertain, assert, be, certify, charge, command, comment, concede, confide, conjecture, contend, decree, deduce, demand, deny, desire, determine, discern, disclose, divulge, doubt, emphasize, ensure, hate, infer, intimate, notify, note, order, point out, postulate, preach, prefer, prophesy, propose, reason, reassure, recall, reckon, recommend, regret, reiterate, remark, remind, report, request, require, reveal, specify, verify, write 등

이러한 동사들은 수행성의 정도가 높다는 판단이 비교적 분명하고 그 의미가 차지하는 부분이 좁아 그 의미 영역의 확대가 적은 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eel*은 본래 ‘만져서 느끼다’에서 출발하여 ‘마음으로 느끼다’, 심지어 ‘생각하다’까지 의미가 확대되는 반면에 위의 제4부류의 동사들은 그 본래의 수행성이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문에 *that*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 주로 *that*절과 *zero-that*절을 취하는 동사들에 관하여 4가지 부류로 나누어 그 의미상의 특질을 알아보았다. 보문에 보문소 *that*이 있고 없음이 동사의 수행성라는 동사자체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 (12) a. 제1부류 : VWV(very weak verbs in performativeness degree)
 b. 제2부류 : WV(weak verbs in performativeness degree)
 c. 제3부류 : MV(middle verbs in performativeness degree)
 d. 제4부류 : SV(strong verbs in performativeness degree)

(13) 표 1. 각 부류에 해당하는 동사의 분류

구분	perf-deg	that유무	동 사
제1부류	VW	무	hope, wish, know, understand 등
제2부류	W	pro-무	admit, accept, assume, discover 등
제3부류	M	pro-유	allege, assure, confess, convince 등
제4부류	S	유	acknowledge advise, allow, announce 등

다음에 다루겠지만 구문상으로나 담화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제1부류는 동사 자체가 가지는 수행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동사로 that이 없는 보문을 취한다. Jespersen(1909-49, §2.3₁)이 인용한 Palmer(1924 §44)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반드시 that이 없는 보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4) a. I wish he'd come!
 b. *I wish that he'd come!
 c.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d. *I hope that it doesn't rain tomorrow.

제2부류의 동사들은 제1부류의 동사들보다는 자체의 의미에 약간의 수행성이 있어 보문소 that을 취할 수는 있으나, 비교적 수행성의 정도가 약한 편이어서 흔히 that을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보문으로 zero-that 보문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부류의 동사들은 동사자체의 수행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들이다.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에서는 제3부류의 동사들은 보문소 that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The Random House Dictionary(1987)를 비롯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보문소 that을 취하는 동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3부류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수행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제4부류의 동사들은 의미자체가 가지는 수행성의 정도가 강하여 보문소 that을 반드시 취하는 동사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동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상 수행성을 분석하여 그 정도를 판단하여, 뒤에 이어지는 보문의 that의 유무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

다. 그러나 보문의 *that*의 유무는 수행성의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성의 정도판단에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2.3 문장 구조가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

2.2에서는 동사 자체만의 의미를 따져 그 수행성의 정도로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비록 *zero-that*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동사라도 문장의 구조에 의하여 그 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부사의 소속을 밝히기 위하여 문장 구조상 *that*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 (15) a. They told us once again *that the situation was serious*.
 b. They told us *that once again the situation was serious*.
 c. ?/*They told us *once again the situation was serious*.

(15)의 *tell*은 보어절에 보문소 *that*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이다. 그러나 (15a.b)에서는 반드시 *that*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15c)처럼 *that*이 없으면 *once again*이 *tell*의 영역 안에 있는 지, 아니면 보문의 영역 안에 있는 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비문 내지는 애매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부사구가 모문에 속해 있는지 *that*절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hat*이 필요하다.

둘째, 두 개 이상의 보문이 등위 접속될 때는, 모문의 동사가 비록 *that*을 선택적으로 취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보문부터는 반드시 보문소 *that*이 필요하다.

- (16) a. I realize (that) I'm in charge and *that everybody accepts my leadership*.
 b. I realize that I'm in charge, and everybody accepts my leadership.

(16)의 *realize*는 보문소 *that*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동사이다. (16a)는 두 개의 보문이 접속사 *and*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16a)에서 첫째 보문의 *that*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뒤의 문장이 *realize*의 보문이라면 *that*은 반드시 써야 한다. 만일 (16b)처럼 접속사 *and* 뒤의 보문

소 that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의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문장 구조가 that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이다. 이는 등위 접속된 that절이 다른 등위 접속된 주절로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셋째, 보문이 주제화(topicalization)를 목적으로 전치(fronting)되는 경우에 반드시 보문소가 있어야 한다.

- (17) a. I simply don't believe she ever said such a thing.
- b. That she ever said such a thing I simply don't believe.
- c. *She ever said such a thing I simply don't believe.

(17)의 believe는 동사 자체의 의미에 수행성이 매우 약한 동사이므로 보문소 that을 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17a)와 같이 that이 없다. 그러나 (17b)처럼 보문을 주제화하기 위하여 전치 시킬 경우에 보문소 that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17c)와 같이 되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문장 구조가 동사와 관련하여 that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넷째, 모문과 보문 사이에 상당히 긴 구 또는 절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는 보문소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18) a. We decided we would admit him for a probationary period.
- b. We decided, in view of his special circumstance, that we would admit him for a probationary period.
- c. ?/?/?We decided, in view of his special circumstance, we would admit him for a probationary period.
- d. I suppose, as she is not here, that she must have gone home.
- e. *I suppose, as she is not here, she must have gone home.

(18)의 decide는 그 자체가 가지는 수행성의 정도는 중간정도로서 보문에 that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그러나 (18b)에서 모문의 동사 decide와 보문 사이에 in view of his special circumstance 라는 비교적 긴 부사구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문에 that을 취하지 않으면 (18c)처럼 매우 어색하거나 비문에 가까운 문장이 된다. (18d)와 (18e)도 모문과 보문 사이에 절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로 위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3에서는 문장 구조가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동사와 관련하여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비록 동사 자체가 의미상 수행성의 정도가 낮아서 *that*을 보문소로 취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장의 구조상 해석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동사의 수행성에 관계없이 *that*을 취해야 함을 보았다. 다음은 담화상 및 통사상 어떤 요소들이 동사의 수행성과 관련하여 보문소 *that*의 유무에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2.4 보문소 *that*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담화 및 통사상의 요인들

대개 *assume*,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등 *think*류의 동사들은 생각, 견해, 바램 등의 내용을 보문으로 취하는 동사들로서 비사실동사 (*non-factive verb*)라고 칭하며, 흔히 *that*이 없는 보문을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변형문법에서는 ‘삭제’ 또는 ‘생략’이라는 하나의 변형 현상으로 파악한다. 보문소 *that*의 유무에 대하여 변형문법과 담화상의 입장이 서로 상당한 상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문법적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학사전(1990,p2321)에서는 보문자삭제(*complementizer deletion*)⁵⁾를 하나의 변형으로 간주하고, Chomsky & Lasnik(1977)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문자 자리인 COMP안에 있는 어떤 요소든지 삭제가 가능하다는 규칙을 설정하고, 이 규칙은 복원가능성조건(*recoverability condition*)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 I said [_{COMP} that] I was tired.

즉 위의 예문에서 보문자 자리인 COMP 안의 요소인 *that*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I said I was tired’는 ‘I said that I was tired’에서 보문자 *that*이 삭제되어 나타난 구조라고 보고 있다.

(20) a. I think [_{IP} he is dead]

b. I think [_{CP} [_{COMP} that] [_{IP} he is dead]]

5) 학자에 따라 *complementizer*를 보문자 또는 보문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보문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의 think는 설명한 바와 같이 보문으로 that절이나 zero-that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즉 CP나 IP를 취할 수 있다. 만일에 that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20a)와 (20b)와 같이 분석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20a)는 (20b)에서 보문소 that이 생략된 구조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21) I think [CP [COMP Ø] [IP he is dead]]

그리하여 (21)과 같이 분석한다면, 즉 보문소 that의 생략에 의하여 나타난 구조로 분석한다면 결국 보문소의 생략 내지는 삭제에 의한 변형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변형 문법에서는 학문이 특성상 이 문제의 that의 유무를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략이나 삭제라는 일종의 변형인 하나의 문법 현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 즉 담화상의 요인들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두 문장 사이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that의 유무에 대한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동사와 관련하여 담화-화용상의 영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사적 분석이라고 해서 모두 담화나 화용적인 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본 절의 후반에서 다룬 바와 같이 문장 요소의 이동은 비록 통사적 분석이라 할 지라도 담화-화용상의 요소에 해당되어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보문의 that의 유무는 임의적인 문법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그 요인들은 담화상으로 볼 때 대개 모문이나 보문이 지니는 정보의 양의 차이와 관계가 깊고, 또한 보문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장 구성 성분들의 이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문이 전달의 중심 내용인 경우에 모문의 동사는 zero-that 보문을 택한다. 따라서 동사가 보문으로 zero-that를 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문과 보문이 각각 포함하고 있는 전달내용의 차이이다.

(22) a. She says () she's hungry.

b. The ministry said () it would disclose further details later in the day.

c. A defence ministry said () a male North Korean captain and a female sergeant crossed the border near th northeastern town of

Cholwon at 06:45 local time(21:45GMT).

- d. Separately,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NSP), the nation's top intelligence agency, said in a statement on Wednesday **that** a 48-year-old North Korean man claiming to be a retired lieutenant colonel in Pyongyang's army defected to South Korea on Tuesday.⁶⁾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문에는 적게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zero-that 보문으로 취하는 것으로 보아 보문으로 *that*절을 택할 것인가 zero-that 절을 택할 것인가는 화용상의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문으로 zero-that 절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이 보문에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보문에 *that*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문장성분에 포함된 정보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22a)문장은 모문과 보문으로 구성된 문장 중에서 매우 단순한 문장에 속한다. 모문의 동사 *say*는 흔히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선택하는 동사에 속한다. 그리하여 (22a)의 경우 모문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보문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적어서 zero-that절을 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그런데 (22b)는 모문의 주어가 (22a)의 모문의 주어보다 더욱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22c)는 그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모문의 주어에 있으나 보문으로 zero-that절이 선택되었다. (22d)의 경우 모문의 동사에 의미를 첨가하는 'in a statement on Wednesday'가 있다. 이 어구는 모문의 동사 *say*에 정보를 첨가하는 문장성분이며 보문으로 zero-that절을 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문으로 zero-that절을 택하도록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문의 주어에 포함된 정보의 양보다는 동사에 직접적으로 첨가되는 정보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달의 중심이 보문이 있어 상대적으로 모문의 기능이 약화되어 보문 중심의 부가의문문이 형성될 때에는 보문으로 zero-that절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때에 보문을 이끌고 있는 보문소 *that*이 없는 절이 보문으

6) (bcd문장인용 <http://cnn.com/WORLD/asiapcf/9810/14/>)

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문 중심의 부가의문문 형성은 보문소 that이 없는 보문에서 형성된다.

- (23) a. I suppose (that) the Yankees will not win.
 b. *I suppose the Yankees will not win, don't I?
 c. I suppose the Yankees will not win, will they?
 d. ?I suppose that the Yankees will not win, will they?

원래 (23)의 모문의 동사 suppose는 수행성이 정도가 매우 약한 경향을 띠고 있으나 that절과 zero-that절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23d)와 같이 부가의문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문으로 zero-that절이 와야 한다. (23b)처럼 모문 중심의 부가의문문도 비문이 되고 (23d)처럼 that절이 보문으로 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보문이 모문 'I suppose'보다 보문이 훨씬 중요한 전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보문이 부가의문문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보문으로 zero-that절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는 that절이 취해진 경우에는 보문 중심의 부가의문문이 형성될 수 없고, zero-that절인 보문 중심의 부가의문문이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보문에 보문소 that의 유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화제화(topicalisation)를 위해서는,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에 보문 내의 문장성분이 모문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that절을 취한 경우에는 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24) a. I don't think I'd ever do *that kind of thing*.
 =TOPICALISATION⇒
 b. *That kind of thing*, I don't think I'd ever do ____.
 (Radford 1981, pp. 213)

위의 예문에서 zero-that 보문 내의 'that kind of thing'은 화제화를 위하여 상위문을 거쳐서 문두로 이동하여도 정문이 되었다. 그러면 보문으로 다 음과 같이 that절이 선택된 경우를 보자.

- (25) a. I don't think [_{CP} that [_{IP} I'd ever do *that kind of thing*]]
 =TOPICALISATION⇒
 b. **That kind of thing*, I don't think [_{CP} that [_{IP} I'd ever do ____]]

(25a)에는 동사 *think*가 보문으로 *that*절이 선택하여 보문 내의 명사가 화제화를 위하여 상위문을 넘어서 이동한 결과 비문이 되었다. 따라서 보문 내의 요소가 화제화를 위하여 보문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문의 동사가 반드시 zero-*that*절을 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화제화는 보문의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화제화를 위한 보문내의 주어 이동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Radford(1997, p150)의 예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6) a. She thinks [_{IP} *money* can buy happiness]
 b. *Money* she thinks [_{IP} ____ can buy happiness]
 (27) a. She thinks [_{CP} that [_{IP} *money* can buy happiness]]
 b. **Money* she thinks [_{CP} that [_{IP} ____ can buy happiness]]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CP속에서는 주어가 나올 수 없고 IP속에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문내의 성분을 화제화를 위한 목적으로 모문을 지나 문장 앞으로 이동시킬 때 IP에서만 즉 zero-*that*절에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반드시 zero-*that*절을 보문으로 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부사전치의 경우도 반드시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취할 때만 가능하다.

- (28) a. I think [_{IP} I'll go to a disco *tomorrow*]=ADVERB PREPOSING⇒
 b. *Tomorrow*, I think [_{IP} I'll go to a disco ____].
 c. **Tomorrow*, I think [_{CP} that [_{IP} I'll go to a disco ____]]
 (Radford, 1981, pp. 214)

위의 예문 (28c)에서는 보문소 *that*이 사용되어 있는 CP이기 때문에 *tomorrow*가 상위문의 앞으로 이동하면 비문이 되었다. 그러나 보문소 *that*이 없는 IP를 택한 (28b)의 경우는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that*을 취하느냐, zero-*that*절을 취하느냐에 의하여 그

보문내의 문장성분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THOUGH-이동도 모문의 동사가 어떤 보문을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보문 내의 보문을 모문 앞으로 이동할 때에도 보문은 반드시 zero-that절이어야 한다.

(29) a. Though I think [_{IP} she is *very pretty*], I don't like her.

=THOUGH-이동⇒

b. *Very pretty* though I think [_{IP} she is ____], I don't like her.

c. **Very pretty* though I think [_{CP} that [_{IP} she is ____], I don't like her. (Radford, 1981, pp. 213)

(29a)의 문장에서 보문의 'very pretty'가 'though'를 넘어 주절의 앞으로 이동되어 (29b)의 문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9b)와 (29c)의 차이는 (29b)는 보문소 that이 없는 절이 보문이고 (29c)는 보문소 that이 있는 절의 경우인데 (29b)는 정문인데 (29c)는 비문임으로 보아 THOUGH-이동도 zero-that절이 보문인 경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모문의 동사가 비록 보문으로 보문소 that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더라도 화용상의 이유로 zero-that절이 선택되어야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여섯번째 요소로 위와는 반대이다. 즉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that절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보문소 that과 자매관계에 있는 zero-that절 내에서 성분의 이동에 깊은 관계가 있다. V-bar전치는 보문으로서 that절이어야 가능하고 zero-that절 내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문내의 V-bar가 어순도치될 때는 모문의 동사는 보문으로서 반드시 보문소 that을 취해야 한다.

(30) a. I think [_{CP} that [_{IP} she is *playing the piano*]]

=V-bar-PREPOSING⇒

b. I think [_{CP} that [_{IP} *playing the piano* she is ____]]

c. * I think [_{IP} *playing the piano* she is ____]]

(30a)의 문장에서 think는 보문으로 that절을 취할 수도 있고 zero-that절을 취할 수도 있으나 수행성의 정도가 낮아 대체적으로 zero-that절을 선호하는 동사이다. 그러나 보문 내의 'playing the piano'라고 하는 V-bar와 같은 문장성분을 보문 내에서 전치할 경우 (30b)와 같이 모문의 동사가 수

행성의 정도와는 별도로 보문소 *that*이 사용된 CP이어야 가능하고 (30c)와 같이 *that*이 없는 보문의 경우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보문 내의 V-bar의 이동도 모문의 동사가 보문에 *that*을 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도 모문의 동사의 보문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여겨진다.

일곱째, 보문 내에서 V-bar뿐만 아니라 VP도 마찬가지로 보문 내에서 문두로 이동할 때 모문의 동사가 보문에 보문소 *that*을 택하여야 한다.

- (31) a. I think [CP that [IP he will *win it*]]=VP-PREPOSING⇒
 b. I think [CP that [IP *win it* he will ____]]
 c. * I think [IP *win it* he will ____]

(31b)에서는 보문소 *that*이 사용된 절이 보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보문 내의 동사 *win*이 보문 앞으로 이동하더라도 정문이 되었으나 (31c)에서는 *that*이 없는 보문 절이 보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따라서 보문 내의 동사구 전치도 모문의 동사가 보문소 *that*을 취할 때만 가능하다.

여덟째, 보문 내의 부정어가 도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비록 모문이 동사가 *that* 없는 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문내의 요소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문소 *that*을 취한 절을 보문으로 택하여야 가능하다.

- (32) a. I think [IP prices have *never* been so high]
 b. I think [CP that [IP *never have* prices ____ been so high]]
 c. * I think [IP *never have* prices ____ been so high]

(32a)문장에서 *think*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문으로 *that* 이 없는 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인데, 보문 내의 *never*가 전치 되어 (32b)와 (32c)가 되었다. 그 결과 (32b)는 정문이 되었으나 (32c)는 비문이 되어 이 경우 모문의 동사 *think*가 보문으로 *that*이 있는 절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문 내에 부정어 도치 현상도 모문의 동사가 보문을 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선택할 것인가 *that*절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문과 보문에 나타나는 정보의 량과 보문 내의 문장 성

분이 어떤 필요에 의하여 모문 밖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보문 내에서 성분이 어떤 필요에 의하여 이동하는 현상 등이 보문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that절을 택할 것인가 zero-that절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모문의 동사가 수행성의 정도가 약하면 보문으로 zero-that절을 취하고, 그 정도가 강하면 that절을 취하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수행성이 애매한 경우는 선택적으로 취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 수행성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that절을 보문으로 택하여야 할 경우가 있었다. 즉 문장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서나 어떤 단어나 어구의 소속관계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의구심이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문의 동사가 동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상 that이 없는 절을 보문으로 취하게 되면 that이 있는 보문보다 더욱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담화 또는 화용상의 영향이다.

또한 제1부류 또는 제2부류에 속하는 모문의 동사가 보문의 유형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문과 보문이 지니는 정보의 양의 차이로써 보문이 모문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전달의 중심이 보문에 옮겨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모문의 동사에 정보를 추가하는 요소들은 특히 부사어구들로 that절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모문이 의미의 전달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zero-that절을 택하게 되고, 이때 모문은 모문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하여 보문의 문장 중간이나 끝에 삽입되어 추가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한편 보문이 전달의 중심인 경우는 보문은 that이 없는 절이 되고, 모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 중심의 부가의문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문의 문장성분이 어떤 필요에 의하여 보문의 한계를 넘어서 이동을 하거나, 보문 내에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반드시 that절을 취할 때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문의 동사가 보문으로 that이 있는 절과 없는 절을 택할 경우,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보

문소 *that*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명윤. (1998). 촘스키 언어학 사전. 서울 : 한신문화사.
- 민중서림 편집국. (1997).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민중서림.
- 조성식. (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1987). Random House Inc.
- Obunsha's Comprehensive English-Japanese Dictionary. (2000) 왕문사.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10:43-74) (reprinted as chapter 2 of Chomsky 1995c).
- Jespersen, O. (190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II(Second Volume §2.3)*, Heidelberg:Carl Winter. London:George Allen & Unwin Ltd. Copenhagen: Munksgaard.
- Kaplan, J.P. (1989). *English Grammar Principles and Facts(pp 271)*,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 Palmer, H.E. (1924). *A Grammar of Spoken English(§44)*, Cambridge.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pp. 2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pp. 1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aum, P.S. (1968).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pp. 164-69)*,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wan, M. (1995). *Practical English Usage(pp. 560)*, Oxford University Press.

250 최 규 정

최규정

580-712 전북 정읍시 시기동 9-28번지

전북과학대학 호텔관광계열

전화: (063) 530-9292

이메일: kjungchoi@hanmail.net

Received: 18 October, 2004

Revised: 30 November, 2004

Accepted: 9 December, 2004